

제434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14일(화)

장 소 국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1)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9)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9)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6)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6)
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1)
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3)
1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5)
1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9)
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0)
1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5)
1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7)
17.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77)
18.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19.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이철규 의원 등 73인 발의)(의안번호 2215037)

상정된 안건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1) 3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9) 3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9)	3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6)	3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6)	3
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1)	3
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1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3)	3
1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5)	3
1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9)	3
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0)	3
1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5)	3
1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16.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7)	3
17.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77)	3
18.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3
19.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이철규 의원 등 73인 발의)(의안번호 2215037)	3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성일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법률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위원장 성일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 6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고 광진수 중위 사망사건 관련 군의 구조적 책임 규명 및 순직 재분류·제도개선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관례에 따라서 2028년도 5월 29일까지 연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1)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9)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9)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6)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6)
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1)
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3)
1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5)
1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9)
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0)
1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5)
1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7)
17.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77)
18.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19. 1980년 사복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이철규 의원 등 73인 발의)(의안번호 2215037)

(14시05분)

○위원장 성일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9항까지 18건의 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승찬 법률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부승찬 위원장입니다.

우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4월 9일에 진행한 심사 결과를 주요 법률안과 결의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일중 의원, 유용원 의원, 김병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

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의 인적사항 등을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언론에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병무청장 등이 병역의무자의 부모,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출입국자료의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의원, 임종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산물자 등을 예외적으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거래 현황자료의 제출기한을 현행 7일에서 20일로 연장함으로써 방산업체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였고,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행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수품에 적용되는 기술의 난이도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용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현행 법정형을 상향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6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려는 것으로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로 인한 국가적 이익 침해 내지 국가안보 위협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승찬 의원, 강대식 의원, 김병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중견 방산업체 등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군수품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를 수행하였으나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하여 시험평가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우주항공사업자와 전력지원체계 군수품 납품업체를 각각 추가하여 공제조합의 보증 및 공제상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이연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방반도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국방반도체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방반도체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과 국방반도체사업자의 지정·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방위사업청장이 국내의 국방반도체산업 현황, 국내외 공급망 및 기업 경쟁력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방위사업청장이 국방반도체 소재·공정·패키징 개발, 국방반도체 설계, 상용 반도체의 군용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설계변경 등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부로 하여금 민간기업의 국방반도체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문기업 설립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은 1980년 사북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 추진 등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법률안 등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오늘 의결할 법안은 국회법 제66조 3항과 79조의2 3항에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본 의원 2건, 김병기 의원, 유용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6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및 8항 김병주 의원, 임종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9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10항 유용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4항까지 부승찬 의원 2건, 강대식 의원, 김병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15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국회법 58조 5항 단서 규정에 따라 동 법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쟁점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및 제2장의 1조부터 제8조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장과 4장 제9조부터 13조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5장·6장·7장 제14조부터 27조까지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이연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18항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 등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분망한 것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병역법, 방위사업법 그리고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병역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우리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무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홍소영**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병역법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과 국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방위사업청 소관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방위사업법 개정안 등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법안을 토대로 방위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 관련 법안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부승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이 됐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사청장님, 아까 장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오전에 기품원장님하고 방사청의 실무자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반도체법이 통과가 됐는데 국방반도체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뤄 본 기술자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빨리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수 분야이고 또 이득이 많이 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이 그동안 참여가 부진했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국방산업의 발달 수준 또 세계가 우리 제품을 요구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정부가 주도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선 사람 구하는 게 급한데 사람을 구한다고 할 때에 아무래도 임금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장애물을 없앨 수 있도록 빨리 작업을 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책정하고 있는 임금의 구조로는 어떤 기술자가 여기에 와 가지고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애국심만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경험 있는 기술자가 와야만 이 산업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있고 빨리 산업화를 할 수 있다. 다행히 지금 국내에 있는 방산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확충하고 있다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건 기업의 일이고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목표나 방향 없이 그냥 줄 수만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을 우리가 주도하고 이끌면서 가려고 한다면 인재 영입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두지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앵커, 소비처이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전문가를 많이 사용해야 되게 하는 것도 저희의 의무인데 중요한 건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저도 열심히 뛰겠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예산 문제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 당국에도 이 이야기는 다 전달을 해 봤습니다. 충분히 해 봤고 또 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획예산처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이나 과장을 그 위원회에 넣도록 보장을 다 해서 오늘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만드시 예산 당국이 들어와서 이게 이득이 되든 안 되든 국가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예산을 다룰 때 방사청이나 국방부가 어려움을 덜 겪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기획예산처의 국장하고 과장한테 찾아 가서서 시급성을 설명해 주면, 기획예산처의 장점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돈을 쓴다고 한다면 1원도 안 줍니다, 어떤 명분을 달아도. 그런데 국가적으로 꼭 해야 되는 정말 국가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나 우리 국민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돈의 액수에 대해서 별로 규제를 두지 않고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또한 기재부의 특성입니다.

이 부분을 아서 가지고 오늘 통과가 되고 본회의가 통과가 되기 전부터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잘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가지고 우리 방산업계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진두지휘를 해 주시고요. 또 장관님 예하에 있는 실국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선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장관님 그리고 방위사업청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을 보면 초기에 엄청난 화력전, 물량전으로 전개되

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기 전에 정보기관 여러 곳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유럽에는 충분한 방위산업의 기반이 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도 유럽에 있는 각국에서 무기나 물자를 동원해서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사실은 그러한 일반 정보기관들의 판단이 틀렸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에 미국이 동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무기가 거의 해외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나토 대표단도 왔다고 하네요. 호주나 영국, 캐나다를 비롯해서 나토의 회원국인 프랑스, 이태리를 망라해 가지고 한국과 양자 간의 군수물자 지원협정을 대폭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리 트루먼이 아주 오래됐지만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말을 썼어요. 민주주의의 무기고, 아스널 오브 데모크라시(Arsenal of Democracy). 그러니까 전 세계 민주국가에 있는 무기들은 서로 호환성을 갖고 유사시 어느 국가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 외부의 침공을 받게 되면 각국이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무기를 서로 지원, 도와주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령 F-16 같은 경우 부품, F-15K의 부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쟁 치르기에 우리가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 각종 포대, 포탄 또 미사일, 늘 보면 며칠 분이다 며칠 분이다 하지만 실제로 쓰려고 보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지금 장관님하고 방사청장님, 창원의 우리 군수물품 관리하는 데 가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혼자 다 해내지 못한다. 그래서 인도나 태국 그리고 이번에 걸프 국가에 천궁-II 수출 요청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사시에 천궁-II를 그 나라에 있는 거 우리가 다시 가져올 수도 있어야 되고, K9 자주포를 호주에 여러 회사들, 기업들이 판매도 하고 있는데 유사시에 그걸 우리가 빌려다가, 대여해다 쓸 수도 있고 이런 협력의 틀이 평소부터 갖춰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을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도 사실 해매고 있는 거예요, 공격 물자에서. 지금 4주 때리고 나니까 부족한 거거든요. 이란이 버티니까 부족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동북아에서 어떤 유사 사건이 발생한다 치면 중국의 생산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다 합쳐도 사실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주, 영국, 캐나다는 물론 프랑스, 이태리, 인도네시아, 태국을 비롯해서 걸프국 여러 나라들과 군수물자 지원협정을 최대한 속도를 내서 다각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땅에 갖추고 늘 준비해야 되는 게 우리 예산의 한도도 있고 해 가지고 충분치 않거든요. 다음에 한번 그것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청장님, 지금 박선원 위원님 지적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예.

○위원장 성일종 수출과 연계를 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해서 박선원 위원님한테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장관님, 제가 지난번에 3축체계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질의를 드렸더니 4월 7일 날 뒤에 계신 국방부 방위정책관 등 참모들 대면보고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3축체계가 다 전력화되지 않아도 미국이나 일본의 도움 없이 미사일 방어에 문제가 없다, 특히 탐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강선영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고를 받은 그날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4월 7일 날. 그래서 합참은 4월 8일에만 두 번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 실제 4월 7일에 발사한 미사일은 하루가 지난 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미사일 발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합참에서 설명하는 것은 당시 미사일이 정상적인 궤도를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탐지를 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데 한반도 전구가 중심이 매우 짧기 때문에 미사일이 정상적인 궤도를 그리지 않아도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저희 자산이 탐지를 못 한 게 아니고 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게 패일(fail)이 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아시다시피 순항미사일이나 실패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발표를 않는 것이 관행이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한미연합 자산으로 해서 더 정밀하게 했던 것입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확인한 거로는 정상적인 궤도를 그리지 못해서 탐지 못 했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그리고 지난번 질의할 때, 뒤에 정책실장 계신데 장관님께 4D에 대해서 쪽지를 보냈습니다. 4D 다 아시니까, 탐지·결심·격퇴·방어인데 이거는 국방백서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작전수행 개념이라고 명시돼 있는 거 장관님 보고받으셨을 텐데 그거와 다르게 방어, 4D의 마지막 방어에 미사일 방어체계에도 교전 절차 4단계가 있습니다. 아마 다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그거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강선영 위원 그런데 아까 말한 4D 말고 미사일 교전체계 4D에 보면 탐지·식별·추적·요격인데 이걸 하기 위한 탐지가 사실은 그 능력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탐지를 해야 이거를 식별하고 추적하고 요격하는 건데, 지난번에 장관님 말씀하신 이후에 방위정책관이 뭐라고 하나면 3축체계와 전작권 전환의 자산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일부가 완성이 돼도 전작권 전환에 문제가 없고 핵심 능력을 갖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3축체계 전체가 다 되지는 않더라도 일부 자산이 갖춰져야만이 전작권 전환에 아까 말씀드린 미사일 요격체계 마지막 방어의 능력을 갖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사청장님 앞에 계시는데, 지난번 제가 전작권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좀 빨리 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개념이 나온다고 해서 전력이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예.

○강선영 위원 제가 왜 장관님께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PPT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본 의원실이 확인해 보니까 2025년 1월부터 약 100일, 그래서 지난주까지 북한이 20여 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종류를 보시면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은 600mm 초대형 방사포입니다. 사거리가 420km이기 때문에 저거는 한반도 전체를 다 커버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화성-11형이라고 부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고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 세 번째는 화살형이라고 불리는 순항미사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세 가지 다 앞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축구장 크기로 보면 10개, 약 6.5~7ha 정도의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고 집속탄을 탑재할 수 있고 한반도 전체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성-11형은 앞에 다탄두…… 다양한 궤적을 그리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고각은 100km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세 번째는 100m 이하의 초저비행을 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사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미사일 방어체계 4D의 방어 단계인 탐지·식별·추적·요격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것이 제가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의문을 갖냐면 2024년도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2025년 정부가 아직 혼란을 겪을 시기에 제가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국방부랑 합참으로부터 업무보고 받은 자료를 많이 봤거든요. 거기 어디에도 2020년대 후반 또는 2030년대 전반,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과 이번 정부가 생각하는 그 시기에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짧은 시기에, 이삼 년이라는 바뀌는 그 시기에 그렇게 획기적으로 기술이 발전되거나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가 느려진 것도 아니고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전력이 극도로 빨라진 어떤 그런 것이 어디에도 안 나타나거든요, 전력이라든지. 그랬을 때 갑자기, 전작권 전환의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5년 이내로 당겨지는 것을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겠나.

그래서 3축체계가 전작권 전환과 동일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면 3축체계 중에 그래도 미사일 4D의 마지막 방어단계인 미사일 요격체계의 어느 능력만이라도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우리 능력을 갖췄다라는 거를 알려 달라고 그러는데 비밀이라고 안 알려 주거든요. 그거라도 저희가 알아야 장관님께 지속적으로 질문을 안 드리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는 한미가 COTP의 기준에 의해서 여러 킬체인과 KMD와 KMPR에 대해서 몇 가지 능력과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명시적으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방공,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데 그 방어체계를 보면 PAC-2, PAC-3, 천궁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L-SAM입니다. 이 L-SAM이 29년에서 28년으로 당겨지는 것이고요. 이게 전작권 전환입니다. 전작권 전환에 한미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합의할 때는 나오지 않았던 드론이나 AI가 지금 대세를 이루기 때문에 그 건 추가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지나면 내일 또 새로운 무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무기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한다는 얘가지요. 그러나 22년도에도 한미가 평가하기를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다, 상당한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평가

를 긍정적으로 다 한 겁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다면……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말씀 더 촘촘히 챙기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작권 전환의 세 번째 조건,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한반도 및 역내 환경이라는 것은 북한이 존재하는 한은 상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수를 전제로 한미가 여러 가지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아마 할 겁니다. 그 평가하에서 저는 결론이 나온다고 봅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떤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을 때는 그만큼 기간이라는 조건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 했는데 그 부분을 너무 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능력을 갖추는 데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말씀 잘 새기겠고요. 제가 국방위원 할 때 2011년도에도 합참이, 제가 야당 간사일 때 저한테 보고가 71%의 전작권 전환의 진척을 이루었다. 물경 15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버전이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그건 계속 충족해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작권이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한미의 연합 방위태세는 더욱 공고해집니다. 아시다시피 6개의 구성군사령부가 구성이 됐다는 것이고 전작권 전환한다고 해서 미측이 손을 떼는 게 아니고 더 촘촘하고 공고하고 거기서 또 유엔사까지 합쳐서 연합 방위태세를 더 공고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국방부장관 안규백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3축체계 내의 미사일 방어시스템 전력화에 대한 것을 비밀이라고 감추지 말고 저희한테 설명을, 저희 어디 가서 공포 안 합니다. 알려 달라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선원 위원님도 군수품 관리에 대해서, 군수 물량에 대해서 다른 나라와 협정을 많이 맺으라는데 많이 맺고 있습니다. 많이 맺고 있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또 생각할 수 있는 그 역량 이상으로 우리 무기체계나 여러 가지 재고량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백선희 위원님 하시고 유용원 위원님 하시고 부승찬 위원님, 순서대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위원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2월에 경기도 가평에서 육군 15항공단 소속 코브라 헬기가 추락해서 2명의 조종

사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순직한 두 조종사에 깊은 애도를 드립니다.

군 장병의 희생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더불어서 안전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강한 군대로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부모 그리고 가족이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는 안전이라는 기본 위에서만 진정한 강한 군대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었지요. 지난해 5월에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 지난해 3월에 공군 KF-16 전투기 포천 민가 오폭 사고, 지난해 2월 공군 F-16 전투기 야간비행훈련 추락 사고 등 항공기 사고가 너무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도태돼야 될 여러 가지 무기체계가 적기에 도태가 안 되고 이것을 군이 사용함으로써 아까운 생명들을 잃는 이런 사태가 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선희 위원 그렇습니다. 2월의 코브라 헬기 추락 사고, 민관군 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거기에서도 사고 원인이 노후화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코브라 헬기, 88년에 도입해서 지금 3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500MD, 시누크 헬기, 블랙호크 등 노후 헬기 전력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코브라 헬기는 40년 가까이 운용하면서 2018년·23년 그리고 24년에 프로펠러 관련해 가지고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헬기 대책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8년부터 31년까지 도태 예정이었던 코브라 헬기 60여 대 전량 조기 도태를 육군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육군에서 보고받으셨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백선희 위원 그러면 60여 대가 전량 조기 도태되는 경우에 우려되는 것이 전력 공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력 공백 모의 분석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보고받으셨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백선희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노후 헬기 조기 도태를 지금 육군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사실 이 부분은 함참하고도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력 공백에 대해서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져서 군인의 생명과 안전도 중요하지만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도 같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노후 헬기 도태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장관님께서 장병의 생명과 안전 우려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조금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브라 헬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퇴역도 했고 판매도 중단되고 사실 부품도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노후 헬기 코브라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비나 대기 중인 헬기의 부품을 빼서 가동할 헬기에 끼워 넣는 동류전용으로 어렵게 헬기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코브라 헬기 대당 10억 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만 연간 운용·유지비가 대당 4억 원이 된다는 것도 경제성을 검토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원인분석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남은 코브라 헬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한도 사실은 1년에서 길어야 3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보다는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위사업청장님한테 조금 이따가 질문을 드리고 장관님에게 수의병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의정갈등 이후에 군 의료체계가 전반적으로 흔들리면서 이 안에서 군의료 중의 수의과 수급 문제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 수의장교도 역시 현역병으로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군 인력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수의병과 임관 인원은 0명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요. 올해는 다행히 10명이라고 합니다마는 전역 인원이 41명이기 때문에 임관 인원의 4배, 그래서 정원 대비 충족률이 50%밖에 되지 않는 위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작년 수의장교 임관 0명 사태 이후에 국방부는 역종 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보다 수의장교로 우선 수급하는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수의장교의 인력 운용 구조를 바꾸는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수의장교의 업무영역이 너무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군견 진료뿐만이 아니라 식품검사, 부식검사, 수질검사·위생점검, 감염병 관리 등 너무도 많은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육군 수의장교 업무영역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검토했습니다.

○백선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수의장교가 식품검사·위생점검 등 넓은 업무영역을 하게 되면, 사실은 임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임상영역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임상영역에 인력 공백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임상직에 인력 배치가 적절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견 같은 경우에 숫자를 줄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탐지, 수색, 경계, 폭발물 탐지 등 우리 군에서는 전시 필수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군병원에서 수의장교의 비임상직위를 조정하고 임상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군동물병원에서 군무원 수의사 편제를 신설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방위사업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브라 헬기 전력을 대체하는 전력화 사업이 필요합니다. 소형무장헬기 전력화 사업인데요. 그것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부분의 생산 확대가 굉장히 수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년에 한 대, 두 대만이라도 조기에 전력화가 된다고 하면 전력의 공백, 부족함을 메꿀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양산하는 업체인 KAI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협의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소형무장헬기 조기 전력화에 대한 양산업체와의 협의 이후에 방사청이 본 의원실로 해당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간단한 설명이 가능하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우선 LAH 사업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코브라 헬기 노후도와 대체전력으로서의 의미가 커서 조기 전력화하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하다, 적극 공감을 하는데요.

현실적인 여건은 2025년에 3차 양산계획이 계획돼 있었는데 사타 일정 때문에 26년으로 순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타 이후에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야 돼서 양산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하는 게 금년 3분기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산 초기에는 품질 안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량생산에 제약 요소가 있다고 이해를 구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품질이 안정되면 수리온 헬기 때 1년에 최대 30대까지 만들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양산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선희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예.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 장관님,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전방지역 경계병력을 현재 2만 2000명인데 과학화경계시스템 등을 도입해서 6000명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1만 6000명은 탄 데로 돌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많은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이게 시기 관련해서 논란이 되니까 2040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원래 그 장소에서 기자간담회 하면서 앞으로 군 구조개편이 있어야 되는데 군 구조개편이라는 것이 병력 구조, 부대 구조, 전력 구조 3개가 세트가 가야 되기 때문에 병력 구조만 가지고서 우리가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전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전력이 뒷받침 안 되면 병력 구조를 손볼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15년, 20년 뒤를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빨라야 40년 정도 가야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설명했습니다.

○**유용원 위원** 잘 말씀하셨습니다. 장관님께서도 국방위원으로 오랫동안 지켜보셨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2000년대 초반부터 병력 감축에 대비해서 우리가 국방개혁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군에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국방개혁안을 수용한 그 배경은 선전력증강 후병력감축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 뒷받침이 안 돼 가지고 전력증강은 미뤄지고 반면에 병력은 예상보다 빨리 감축이 되면서 이 괴리가 생긴 거지요. 그래서 상당히 전력 공백 문제가 계속 생긴 건데 똑같은 상황이 장관님 말씀하신 그 계획에도 적용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당연히 이 세 가지 조건이, 세 가지 정책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군 구조개편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에,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AI 시대에 드론이나 이런 활용에 대해서 경계 부담을 감소하고 병력 자원 절감해야 된다 누차 다 강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력 구조가 뒷받침이 안 되면 병력 구조라는 것은 사상누각입니다.

○**유용원 위원** 그리고 과학화경계시스템 외에 레일형 로봇, 자율 전투차량 이런 로봇이라든지 드론 이런 걸 통해서 병력 감축, 병력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취지 말씀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유용원 위원** 장관님, 리퍼의 역설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유용원 위원** 리퍼가 영화에 등장하는 킬러 드론이고 지금 이란전쟁에서도 이란의 군사적 목표물을 타격하거나 아니면 경찰·감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에서도 드론 도입하면서 병력이 줄 줄 알았는데 일시적으로 운용 인원이 추가돼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학화경계시스템도 실제로 도입하면서 일부 운용요원이 일시적이지만 추가로 필요해 가지고 기대했던 병력 감축 효과는 거두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AI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부승찬 위원님하고 같이 국방 AI법 발의를 했습니다만 AI가 만능은 아니란 말이지요. 드론·로봇이 일반인들이 기대하는 만큼 병력 대체 효과가 크지 않다 그것도 장관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 주지 않도록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병력 구조…… 군 구조개편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인구절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따라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력이 뒷받침으로 같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서 앞으로 15년, 20년을…… 무기체계가 금방 뚝딱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인터벌 긴 시간을 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본 장관의 생각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신원식 장관께서도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작전, GP 무인화사업 시범사업을 본인도 계속 주장을 했고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도 동감을 해서 예산도 태워 주고 현장도 가 보고 현장시찰도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유용원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있는데 시간을 좀 더 주셨으면……

○**위원장 성일종** 그냥 연이어서 하십시오. 원래 2분씩 더 드렸습니다.

○**유용원 위원** 방첩사에서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랄 만한 통계를 들어서 여쭙고 싶은데요.

최근 3년간 방첩사 신원조사 과정에서 식별된 신원특이자가 2023년 1만 6000명에서 25년 2만 4000명으로 50%나 급증했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비취인가 대상자나 방산업체 예정자 중에도 금전 비위, 성범죄, 도박, 마약, 이른바 방첩 취약 범죄 경력자가 15% 이상 포함돼 있는 걸로 나타났고 심지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도 식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 정부 들어서 방첩사가 사실상 약화되는 상황이어서 우려들이 많습니다.

장관님, 이에 대한 대책은 뭘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군대의 여러 가지 병리현상도 사회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함께 이 문제도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범죄나 수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별도의 조직에서, 기관에서 아마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방사청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RDP-A 아시지요, 한미 상호 국방조달협정.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 해공군 훈련기 사업 진출하고 이러려면 서둘러야 되는데.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약간은 좀 답답한 상태입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유용원 위원** 청장님이 답답하다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든.....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용원 위원** 대통령실을 움직이든 해 가지고 백악관하고 직접.....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기회가 될 때마다 저희가, 장관님도 노력하고 계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선 미국이 저희에게 대해서만 그렇게 보수적인 입장인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어서 아주 속 시원한 진전을 못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용원 위원** 하여튼 아시다시피 기회의 창이, 시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장관님, 군사적 측면에서 봤을 때 중동전쟁의 특성 중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외교, 국방외교를 좀 더 촘촘히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최근에 중동의 세계전쟁을 보면서 이제 세 가지가 없어지겠구나. 인간, 직업, 진실. AI 드론이 전쟁을 하는 것 보고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런 점들을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좀 했는데 비용 구조의 비대칭성, 즉 말하자면 드론에 대한 요격이 2~3만 달러의 드론 1대를 300~400만 달러의 패트리엇 한 발로 요격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북한 같은 경우는 이런 전략들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50만 드론전사 양성하고 드론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입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감시자산을 통해서 과연 북한에서 넘어올 수 있는 자폭드론들을 다 디텍션(detection)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도 패트리엇나 천궁이나 이게 아닌 결국은 저비용의 방어자산을 통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지방공 레이더라든지 저고도탐지 레이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 보완이 돼야 되고 또 이것을 탐지해서 식별했을 때 추적하고 요격하기 위해서는 고가가 아닌 저가를 이용해야 이 비대칭성을 완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드 파워적 입장에서만 어떤 전력계획의 수립, 확보계획이 수립되는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 지금 전쟁 양상이 그렇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지금 북한도 러시아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드론도 상당히,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고가의 드론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중저가는 아직은 초보 단계이지 않습니까? 또 대드론체계도 저는 약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모든 무기체계는 북한이 1이면 2~3.5의 능력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승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점에서 방위사업청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 드론구매 사업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완제품을 구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표준화 계열화를 한 후에 구매 방식이 결정되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UAV처럼 조금 고사양은 방위력 개선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완제품 드론의 경우에는 전력지원체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국방부차관보님, 이게 어떻게 돼요? 제가 듣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완제품을 구매한다고 하는데, 저가용 드론 같은 경우요.

○**국방부차관보 원종대** 예, 맞습니다.

저가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연구개발을 해서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싸게 만드는 것보다는 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즉각 즉각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승찬 위원** 이게 어찌 됐든 표준화 계열화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구매가 결정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완제품만 사게 된다면 이게 뭔가…… 이제 우리가 조립·생산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 같은 경우, 해킹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는 국내를 우선으로 사용하고, 이것은 강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외국산 쓰면 안 돼요?

○**국방부차관보 원종대** 우선은 계열화하고 표준화하는 부분은 계속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부승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그냥 완제품 구매로 공고가 난다

고 해서……

○국방부차관보 원종대 혹시 50만 드론전사 사업 말씀……

○부승찬 위원 예.

○국방부차관보 원종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사업의 주 목적은 공공 수요를 창출해서 드론…… 현재의 교육용 드론 같은 것을 보면 대부분이 중국산 부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수요를 많이 창출해서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부승찬 위원 국산화를 하면, 지금 기술력이나 이런 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뇌에 해당되는 항전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를 하지만 날개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불필요한 부품 같은 경우도 꼭 국산으로 다 묶을 필요가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방부차관보 원종대 그래서 저희가……

○부승찬 위원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길어질 것 같으니까.

○국방부차관보 원종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산화를 안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계열화 표준화를 해 가지고 국산 저가의 무인기가 다량으로 생산돼서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개인화기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앞으로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산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승찬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제가 KADEX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KADEX요?

○부승찬 위원 KADEX.

지금 국방부……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게 위법사항이 있잖아요. 2024년에 보안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활주로를 4개월간 무단으로 사용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훈령 위반이지요. 국방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을 위반한 거지요. 그리고 국가 안보가 특정 업체에 농락당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확한 위법이고, 이번에 육군협회가 발표했는데 MOU를 통해서, 25년 12월 MOU를 통해서 육군 인력·장비·예산 지원받기로 했다 그 문구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적하니까 바로 홈페이지에서 내리고……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방산업체들이 계속해서 저희 의원실에 찾아와요.

저는 KADEX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DX KOREA도 마찬가지예요. 민간 대행업체만 배불려 주는 이런 것. 그래서 통합을 해서 하든 이런 국가급 행사로 ADEX라면 ADEX…… ADEX는 부산시 시 행사로 격상이 되고 ADEX는 이제 국방부가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KADEX, DX는 뭐니까? 방산업체들은 그냥 완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참석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법한 행위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병력 동원만 보더라도 두 번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 장병이 2000명이나 동원됐어요, 2000명. 어마어마하게 동원된 거지요, 민간 대행업체 배불려 주는 데.

그래서 어찌 됐든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명확히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립인가 취소 근거도 됩니다. 민법에 분명히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도 있고, 그다음에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도 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히 국방부가 안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강력하게 감사를 요구하고요. 이런 위법한 행위를 눈감고 또 해 준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방부가 감사에 나서서 명확히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아직까지 KADEX가 됐든 DX KOREA가 됐든 간에 어느 업체에서도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가정을 전제로 대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만약에 공식적인 요청이 오면 엄밀하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엄밀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육본과 MOU를 맺은 것에서 다 지원하기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사기행각들을 통해서 방산업체에 대해서 갑질 아닌 갑질을 하고 있고, 방산업체는 참여 안 하게 되면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까 봐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X KOREA가 됐든 KADEX가 됐든 이것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나중에 취소도 못 하고, 그 과정 속에 위법함이 보였는데 취소도 못 하고 설립인가도 취소조차 못 해 버리면 앞으로는 무슨 근거로 이런 법인들을 국방부나 육군이나 해군이나 공군에서 통제를 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2개를 합쳐서 하든 뭐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서로 치고 박고 싸우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이번에는 무조건적으로 DX KOREA가 됐든 KADEX가 됐든 일체의 장비·병력·예산 지원은 불허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기호 위원님한테 질의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장관님, 중동전쟁 관련해서 지난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3월 24일 날 장관님이 ‘미측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물밑에서 협력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뭐와……

○강대식 위원 중동전쟁과 관련해서 지난 3월 24일 ‘물밑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 했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며칠이 지났는데 진전된 사안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직까지는 미측에서 중동전쟁,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어떤 요청이나 협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협력과 협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요청 없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러면 공식 요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비협조국으로 규정하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시다마는 어쨌든 공식적인 레터나 어떤 요청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대식 위원** 없으면서 우리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를 돕지 않았다, 용기도 없다, 의지도 없다 이렇게 강한 표현을 써 가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아주 깔보고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물밑에서 뭐가 있었는데 우리가 액션을 안 취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도무지, 지금 국민들도 언론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보고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앞으로 계속 전개될 내용 같은데요. 대미 또 대이란 관계를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여러 가지 방식, 절차 또 대외 메시지도 신중히 조율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고수하다 보니까 미국 측에서는 비협조국 프레임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마저도 들게 됩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만약에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의를 해 줘야 됩니다. 또 동의를 해 줘야 되고요. 그런 상황 변화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위원님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꾸 미국 측에서 나오는…… 협력, 협의, 공조라고 우리 쪽에서는 계속 장관님이나 합참에서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마는 완전히 이번 중동전쟁 이후에 나타나는 걸 보면 비협조국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동맹에 무임승차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향후, 물론 우리가 앞을 내다보면서 가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가정을 했을 때 핵추진잠수함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주한미군 재배치 이런 것 등등 패키지 안보 청구서를 미국 측이 우리나라에 제기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님께서?

○**국방부장관 안규백** 글썄요, 그것은 단기적·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말씀을 믿습니까, 누구 말씀을 믿습니까?

○**강대식 위원** 당연히 국방부장관 말을 믿어야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미 위원님께서도 미측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했는데 그걸 숨기고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가 돼 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강대식 위원** 아니,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우리가 스탠스를 쓰니까 애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강한 발언을 하지 않나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국방부장관 안규백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대외관계 또 국익 관점에서 더 신중히 바라봐야 되고 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것은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제안이 없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강대식 위원 방금 장관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야 믿을 사람이 우리 국가하고 군대하고 이걸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강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찌 보면 동맹의 시험을 받고 있는 시험대에 올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의구심도 들게 만들고요.

아무튼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느니 지금 온갖 전체적인 안보 차원이나 경제 차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중동전쟁의 발발로 말미암아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있고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강대식 위원 특히나 미국 트럼프 이야기가 아주 가볍게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손해 보는 것은 우리 국민만 손해 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안보비용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장관께서 또 우리 군이, 우리 정부가 아주 중심에 딱 서는 그런 스탠스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식 위원 오늘 육본 측에서 혹시 나오신 분 계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오늘 육군……

○강대식 위원 장관님 혹시 보고받았으면…… 내가 여기서 드러내 놓고 할 이야기는 아닌데, 그게 어떤 거였는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 4월 9일 날 50사단 501여단 2대대에서 미상의 탄약이 발견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았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미상의 탄약이요?

○강대식 위원 예, 탄약. 보고받으신 적 없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강대식 위원 특전사 훈련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는 탄피 1300발, 탄 995발, 최종적으로 이렇게 발견되었다 하는데 혹시 육군 측에서 보고……

○국방부장관 안규백 특전사 훈련할 때 훈련장에서 아마……

○강대식 위원 맞습니다. 유격훈련장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상황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강대식 위원 이게 왜 여기서 발견된 건지 그 이유는……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더 파악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군인가족 간담회를 했습니다. 군인가족 간담회에서 군인가족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죽신’을 아느냐,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모른다 그랬더니 군인가족 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한 얘기가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다’ 이래서 얼죽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출을 많이 가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가 하도 낡아 가지고 낡은 아파트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형편이라서 좁아도 좋으니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예결위원회에서 얘기했지만 아파트 상태가 지금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군의 숙소를 할 것이냐 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한기호 위원 또 하나는 육아수당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 육아수당을 주는데 군인들은 명령이 나면 어차피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돌 되기 전에 얼마 주고—지자체마다 다르니까—또 두 살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거주 여건을 따집니다. 이게 지방마다 다 달라요. 어디는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혜택을 못 받는 거지요. 그런데 자기 동료인데 먼저 이사 와서 살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갓난쟁이 하나 키우는 사람은 받고 지금 온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새로, 신규로……

○한기호 위원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여가부장관하고 협조를 해서 각 지자체에 군인만큼은 여기서 예외로 해 달라는 것을 장관님이 조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가족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사관학교 문제인데, 장관님도 저를 잘 아시지만 저는 대위 때 3사관학교 훈육장교를 했습니다. 대령 때는 교육사 학교교육처장을 했습니다. 소장 때는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을 했습니다. 여기가 육군의 교육·훈련 총 참모 책임부서입니다. 중장 때는 육군교육사령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보다도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개혁을 하고 혁신하는 것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과 혁신은 원칙의 범위 안에서 가용한 수준을 정해 놓고 해야 됩니다.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 제가 원칙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군 교육체계입니다. 우선 양성교육이 있고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초급간부·중급간부·고급간부, 저것은 보수교육입니다. 양성교육은 바로 생도, 후보생들을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바꾸는 신분 전환 교육입니다. 병사들은 훈련소에서 신분 전환 교육을 하고 부사관들은 부사관학교에서 신분 전환을 합니다. 장교들은 바로 사관학교, 학군교에서 신분 전환을 합니다. 여기는 장교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급간부가 되면 병과학교에서 소부대 지휘능력을 갖춰 줍니다. 대위가 되면 병과학교에서 제병협동훈련의 기본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중대급 지휘와 대대참모 업무

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고급간부들, 소령부터는 각군 대학교에서 제병협동작전의 심화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여단 참모·지휘관 교육을 합니다. 중령 때는 합동참모대학교에서 교육을 합니다. 이때 합동성과 연합작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령·장군은 지휘관으로서 직무교육을 합니다. 이게 교육의 육해공군 공히 적용되는 큰 체계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다음.

그러면 교육은 뭐냐, 교육은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4대 요소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는 환경을 포함시킵니다. 첫째가 교육을 시키는 교사입니다. 교사는 어떻게 내가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학습자, 이것은 이해를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내면화입니다. 교육 내용, 학습자의 성장 수준에 맞춥니다. 여기에 맞춰서 교육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한 환경이 문제인데 이것은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는 여건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지금 개혁하려고 하느냐. 개혁이 어차피…… 교육의 3요소인데 어느 것을 하려고 하느냐. 사관학교를 한다고 그러니까 사관학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수는, 이것은 제가 아니고 명시된 얘기입니다. 교수뿐 아니라 지휘관, 모범자의 역할을 하면서 행동과 태도로 리더십을 보여 주는 존재다. 그래서 교수만의…… 가르치는 역할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훈육까지 같이 포함돼서 훈육관과 교수는 바로 미래 장교의 롤모델입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정복을 입고 교육을 합니다.

두 번째, 학습자(사관생도)는 단순한 학생이 아닌 예비장교로 학습과 동시에 생활 속에 군인의 훈련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배우면서 동시에 군인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육 내용은 실제로 일반적인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군사 기초지식, 전투능력, 이것은 전투기술입니다. 총 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됩니다. 리더십 통합교육, 이것은 바로 교관은 모범적이어야 되고 생도는 이것을 자기 몸으로 체득해야 되고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서 환경과 함께 됐을 때 실전형의 장교가 양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육개혁을 한다면 저기에서 교사가 문제가 있느냐, 사관학교가 저렇게 돼 있는데 학습자가 문제냐, 교육 내용이 문제냐, 어느 거냐 이거예요.

다음.

이것은 명시된 겁니다. 사관학교의 부대령하고 여기 명시돼 있는데, 육군사관학교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육군장교를 키운다. 그러니까 고급장교를 키우는 게 아니고 초급 육군장교를 키운다. 해군사관학교는 해양안보를 책임지는 해군 및 해병대 장교를 양성한다. 양성한다는 거니까 전부 다 초임장교를 키우는 거지요. 공군도 마찬가지로 항공우주 전력을 이끄는 공군장교를 양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은 육군사관학교에서 의무·명예·국가, 이 세 가지를 교훈으로 삼고 학문과 체력, 리더십, 기초군사훈련, 네 가지를 가르칩니다. 이게 미국의 웨스트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개혁은 뭘 하는 거냐. 사관학교 교육목표가 지금 잘못됐냐, 그러면 목표를 고쳐야지. 그러면 목표를 지향하는, 가는 길에 학습자가 문제가 있냐, 아니면 교육 내용에 문제가 있냐, 교육 환경에 문제가 있냐, 어느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관학교뿐

이 아니라 임관하는 숫자 중에 사관생도보다 더 많은 숫자가 3사관학교, 학군, 간부사관, 특수사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하게 얼렁뚱땅해서 할 수도 없고 급하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 저는 이 실무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통합사관학교 한다고 했었지요. 제가 당시에 실무자로 검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지난주에 세미나를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왜 안 부르니까? 왜 국회의원은 초청장도 한 장 안 보내 줘니까? 부르면 안 됩니까? 장관님, 부르면 안 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닙니다. 통합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기호 위원님께서 군교육의 전문가이신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보물 같은 얘기를 앞으로 많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군의 교육체계가 단계별 치밀하게 돼 있는 것은, 군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해야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요. 우수한 지휘관이 나와야만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군에 취직하는 게 아니고 복무한다고 그러합니다. 복무라는 것은 그런 우수한 자원들이 국가에 목숨을 바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각계 의견을 듣고 있고 아직 국방부에 TF팀을 꾸리지는 않았습시다마는 아마 곧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도 모셔 가지고 여러 가지 고견을 들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기호 위원** 다시 한번 첫 번째 장으로 돌려 봐 주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다 봤습니다.

○**한기호 위원** 다시 한번 돌려 봐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제가 왜 이것을 만들었냐 하면 양성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고급간부의 합동성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성 과정에 저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계별로 다 있는데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단계에서 합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저렇게 단계별로 다 있다니까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의 전쟁 양상은 위원님이 군생활하셨을 때하고는 아주 천양지차, 다르지 않습니까?

○**한기호 위원**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한기호 위원** 저게 지금 겁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가 아니고 지금 겁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그러니까……

○**한기호 위원** 장관님, 자꾸 너무 올라가지 마시고 지금 생도들한테는, 아까 생도들 교육목표하고 교육에 대한 것도 지금 겁니다. 각 사관학교 것을 제가 종합한 거예요. 제 때 것 아닙니다. 지금 겁니다. 이게 다 지금 겁니다. 지금 건데 저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런데 보수교육에 있는 것을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뒤죽박죽 섞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 TF에서 만들어서 권장한 내용을 제가 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장관님한테 그렇게 섞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국방부장관 안규백**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고요. 하나의 기본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시고 또 경험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질정(質正)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거기에 써 있는 것 중에 교관에 대한, 교수에 대한 것을 실력이 있네 없네 하는데 저기에 명시하다시피 교관과 훈육관은 바로 모범이 되는 장교들입니다. 왜 군인들로 교수를 편성하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실력이 없으니까 민간인으로 바꿔야 돼, 이렇게 썼으니까 목표하고 실제로 왜 그런가하고 안 맞는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실력이 없어서 민간 교수로 바꾸는 게 아니고 다양성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생도들이 더 많은 공부를 체득하게끔 하는 겁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관과 훈육관은 바로 장교들의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롤모델이라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지요. 좋은 교수를 만나야 좋은 생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도 좋은 아빠를 만나서 아들도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교수를 만나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이게 롤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교관들은 군복을 입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만 그러느냐? 웨스트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사·공사도 다 군복을 입고 교육을 해요. 왜? 장교의 롤모델로 보여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목적을……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은 교수하고 민간인이 8 대 2거든요. 군인이 8이고 민간인 교수가 2인데 다양성 시대에 또 AI·최첨단 시대에 생도들의 요구는, 육구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것을 다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기호 위원** AI 시대에 교육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지. 아까 교육의 3요소 중에 교육 내용입니다. 실제로 롤모델은 또 다른 문제예요. 바로 학습자하고 교사하고 교육 내용이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것은 교육 내용이에요. 분야가 다른 거거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생도들의 여러 가지 역량과 실력도 또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제의 규모, 학생들의, 생도들의……

○**위원장 성일종**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역량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놓고 평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균형을 맞추고 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충분히 말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드렸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장관님이 세세하게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으시잖아요. 뒤에 계신 실장님이든 누구든 우리 한기호 위원님한테 교육과 관련해서 귀중한 말씀 주셨으니까 추후에 과정들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또 그에 따라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지금 중동전쟁으로 우리 국민들은 사실 경제와 에너지 위기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경계태세나 연합방위태세에 이상 없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데 연합방위태세 이상 없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합니다.

○**김병주 위원** 한미동맹 이상 없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중동전쟁에서 실제 미국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제가 봤을 때 파병 문제—호르무즈 해협에—그때 실질적으로 요청은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진척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중동전쟁이 지금 한 달 이상, 5주째 6주째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병과 또 여러 가지 제원에 대해서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마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면, 종전 협정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으면 종전 이후에는, 아마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다국적군을 해서 거기를 종전 이후에 안정화 관리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에서는 수시로, 일일 평가와 함께 수시로 여러 가지 평가와 미래 전망을 놓고 토론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종전되기 전까지는 저는 근본적으로 파병은 반대하는데 종전 이후까지 반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선의 보호를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사무처에 승인사항이나 아니냐, 국회 승인사항으로 요청해서 받은 문건을 보니까 세 가지의 경우가 있었는데 참고로 검토를 국방부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예요.

호르무즈 해협에 억류된 우리 상선의 구조와 호위는 국회 동의를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국회사무처에서는 얘기했고 홍해 우회로 확보, 지금 홍해 그쪽도 지금 후티 반군의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우회로 확보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한 다자 노력에 대한 참여,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두 가지 사항은 국회 승인사항이 필요하더라는 것이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내린 결론이거든요. 아마 국방부도 이런 검토를 했을 것 같은데 혹시 검토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고 또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작전 범위를 넓히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또 다른 임무가 주어지면 그 임무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렇지요. 아직 중동전쟁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중이고 또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국회 동의를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실로 쓰던 청사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김병주 위원** 지금 예산은 206억으로 편성이 됐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당초 219억……

○**김병주 위원** 219억 했는데……

○**국방부장관 안규백** 깎여서……

○**김병주 위원** 기획예산처에서 206억 원으로 편성 결정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가능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글쎄요, 실무자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가지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네트워크 시설이 제일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요.

○**김병주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사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특히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 아마 124억 정도 드는 것 같은데 그것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김병주 위원** 그래서 예비비 확보가 부족하다면 국회에 더 요구를 하셔서 들어갈 때 부족함이 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여야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예.

그리고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2층 집무실에 사우나실도 있고 상당히 그런 것 있던데 이것 철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잔재들은 제가 봤을 때 과감히 철거하고 국방부가 국방부 자체로 임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상식이라는 것은 예증과 설명이 필요 없는 게 상식인데 모든 것은 상식선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민간 장관으로서 안규백 장관님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이유가 모든 것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금만 더 주시지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방개혁을 하고 이런 것도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김병주 위원** 사실 군에 오래 있다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실에 사우나실을 만들어서 저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때 대단히 분노했고 그런 것들은 미련 갖지 말고 과감히 철거해 버리고 장관으로서 더욱 국방부가 최선의 임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전이 한 5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던데 실제 이전은 언제쯤 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전은 7월 하순부터 시작하는데 아시다시피 시설본부가 합참으로 들어와야 되고 합참이 국방부로 다시 또 와야 되고…… 아니, 합참이 다시 재정리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시간은 꽤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이사는 아마 7월 말부터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합참이 전에 남태령 쪽으로 이전하려고 했던 것은 백지화시켜야 되겠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것까지 했으면, EMP 방호시설까지 포함시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주한미군이 용산에서 이전하면서 새로운 잔류기지, 신기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대통령실 바로 옆에 드래곤힐 그 지역이었는데 나중에 이전하다 보니까 지금 용산기지 이전도 삼사 년 늦어졌잖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잔류기지는 그러면 예전에 하려고 했던 대로 잡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렇지요? 거기서 하면 한 1000억 조금이면 가능한데 다른 데로 이전했을 때는 한 5000억 정도 든다고 제가 그때 계속 문제 제기했었거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마 그 호텔이 상당히 역사가 있고 또 품위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끝 지점은……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성일종** 모든 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제가 김병주 위원님만 특별히 1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 12·3 내란으로 비정상화된 부분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국방부 건물을 뺏아서 들어가서 대통령실을 옮겼고 그때 국방부가 쫓겨났던 일이에요. 저는 그것 눈에 흠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 못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되고 있어서 사실은 너무나 기분 좋고 행복합니다. 정상화가 될 수 있게 그리고 합참도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사이버사가 공간이 없다 보니까 방첩사에 반 또 다른 지역에 반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방첩사 이제 해체되면 그리 통합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그 부지가 돈이 한두 푼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사이버사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장비, 장구류, 여러 가지 네트워크 시설이 바닥에 다 치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간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거의 마친 단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안규백**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화가 될 경우에 우리도 대응책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아까 준비는 하고 계시다, 매일매일 상황 체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나리오별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요.

아마 여러 가지 단계별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40여 개국이 국제연합 같은 형태를 만들어서 해역을 함께 관리하자 이런 안이 제안이 됐는데 여기의 주도 국가는 지금 어느 나라에서 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영국과 프랑스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여한다는 그런 의사 표명을 어나운스(announce)를 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 구조하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렇게 되면 우리 함대 규모는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우리도 여러 가지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대비태세에 손실이 없는 상황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 제원이 들어가고 어떤 무기체계가 간다 이 말씀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래도 함선의 구성은 어느 정도 해야 될 거라고요, 알아야 될 거라고요. 어차피 그것은……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있는 대조영함은 대공·대드론 체계 방어 정도 수준이지 탄도탄 미사일 방어 수준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더 보장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콤비네이션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나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단계별로 합참과 국방부 정책실에서 계획을 짜 놓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우리가 함선을 파견한다고 하면 국내에서 준비를 하고 가야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시간도 꽤 걸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게 얼마 정도 걸리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약 28일 이상 걸린다고 봅니다.

○위원장 성일종 국내에서 준비하는 데 28일……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닙니다. 거기까지 가는 데.

○위원장 성일종 가는 데 28일 걸리고.

○국방부장관 안규백 약 두 달 정도,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성일종 준비는 2개월 정도 걸리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약 한 3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위원장 성일종 혹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또 특히 지금 우리 상선 26척이 거기에 있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선 보호라든지 국민 보호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 또 북한의 최현함이지요? 그렇지요?
- 국방부장관 안규백 함이지요, 함.
- 위원장 성일종 여기에서 함선의 무기체계 통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각종 무기체계에 대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관님, 보고받으셨나요?
- 국방부장관 안규백 실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어느 어느 실험, 어떤 실험을 했지요?
-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를테면 순항 미사일이랄지 여러 가지 탄도탄 미사일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다양한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그 함선에서 했지요?
-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몇 회 정도 했나요? 또 성능은 좀 어떤가요?
-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 위원장 성일종 성능은 제한적이다?
-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우리의 방어무기체계가 방어할 수준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 국방부장관 안규백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못 하실 부분도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 국방부장관 안규백 우리의 무기체계, 방어체계나 이런 것들의 역량이 북한의 모든 무기체계의 2배 이상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이러한 무기의 대응체계에 대한 분석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지요?
- 국방부장관 안규백 합참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합참에서 하고 있다?
-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 위원장 성일종 과학적 분석이 합참이 가능합니까?
- 국방부장관 안규백 합참이 어느 정도 안을, 기본적인 드래프트를 가지고 오면 국방부 정책실하고 연합으로 같이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집속탄도 실험을 했지요?
- 국방부장관 안규백 집속탄은 하나의 플랫폼이고 집속탄 안에 자탄이 있는데 그 자탄의 역량이 낮은 것은 아니라고 평가를 하는데……
- 위원장 성일종 북한의 자탄의 역량이 낮지는 않다?
-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낮지는 않지만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성일종 집속탄인 것을 사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왜 그러면 우리가 인구밀도가 높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빨리 요격할수록 우리의 방어가 더 강화……
- 국방부장관 안규백 우리는 요격할 능력이 충분히 돼 있고요. 우리는 어떠한 그 이상

으로도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하여튼 요즘에 보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면서 무기의 고도화를 통해 가지고 해상과 또 육상, 여러 분야에서 우리 안보에 여러 가지 위협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장관님께서 우리의 국방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하여튼 과학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만반의 준비를 갖춰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역량 이상의 능력을 갖춘 것이 대한민국 국군이다 생각하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그리고 지금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찬성·반대 의견……

○**위원장 성일종** 차관한테는 전화상으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장관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향후 전투력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로부터 벗어나서 1학년, 2학년 생도 때부터 정말로 지방에 갔을 때 육군사관학교의 서울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여러 생도들의 바람과 이게 배치됐었을 때 전투력이 유지될 것인가.

북한이나 주변 국가들은 비교적 상당히 수준이 높은 학생들의 지원을 통해서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전하는 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십사.

그렇지 않으면 이게 향후 우리 국방의 생도들에 대한 좋은 인재 확보에 아무래도 빨간 불이 들어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아까 한기호 위원님께도 교육 과정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님과 예하에 계신 많은 분들이 향후에 인재 육성을 하는 데 좋은 인재가 우리 학교에 몰려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지리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지리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국민주권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을 살리고 또 좋은 인재를 발굴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이 아직, KIDA 의견도 아직…… KIDA에다가 국방부에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마는 아직 용역 자체가 생산이 아직 안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듣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지금 육사가 330명, 해사가 170명, 공사가 210명 어바웃 (about) 700명입니다. 그러면 700명이면 1·2·3학년 다 합치면 약 2800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반대학의 종합대학은 약 2만 명에서 2만 5000명입니다. 규모의 경제 면에서도 상당히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직역보다도 군에 우수한 자원이 들어와서 전쟁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군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대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도, 생도들도 우수한 생도가 들어와야 되고 교수들도 양질의 교수가 들어와서 양이 질을 변화시키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장관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육군사관학교 졸업생 보니까 260여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330명 들어왔다가 중간에 관뒀겠지요. 그리고 국방과 관련된 인재 육성은 경제의 규모로 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을 하셔서 아주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국가가 너무 계산적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다른 위원님들……

한기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한기호 위원** 아니, 간단한 거 조금……

○**위원장 성일종** 예.

○**한기호 위원** 대학과 사관학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 밀리터리 아카데미라고 하는지 그리고 일반대학교하고 달라서 학문 연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웨스트포인트가 제일 크지요. 학생 수가 4400명입니다. 1개 학년에 1100명입니다. 그중의 반이 현역으로 남고 반은 예비역으로 갑니다. 이 웨스트포인트도 학문을 하지 않습니다.

학문을 한다는 것은 석사 과정, 박사 과정을 전부 운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법에 사관학교에 과학 분야의 석박사를 양성하도록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한 모든 기자재나 연구시설을 갖출 수가 없고 그것을 갖춘다는 것이 학교의 건학정신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것을 혼돈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일반대학교는 분명하게 학문을 전문으로 해서 연구해서 그것이 성취돼서 사회에 환원되도록 만드는 거고 우리는 장교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슬라이드를 보여 드린 거예요. 자꾸 이거를 왜 혼동하느냐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혼동이 아니라요. 옛날에 위원님이 군생활하고 군단장하고 할 때……

○**한기호 위원** 지금 자꾸 옛날 얘기하시는데 제가 옛날이 아니라 그랬지요. 지금 또 한번 저하고 싸우시겠어요? 옛날이 아니고 지금이라고요. 제가 지금의 교육 목표이고 지금의 교육 과정이고 제가 이거를……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 하루가 다르게 군사적인 상황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기호 위원** 저게 지금의 교육 시스템이라니까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옛날에는 한 가지만 원했다면 지금은 한 사람이 열 가지 이상 올도메인(all domain)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 시대 아닙니까, 다영역 시대. 옛날에는 전자기기로 싸운 적 있습니까?

○**한기호 위원** 그러면 사관학교만 나오면 거기서 맞바로 장군도 돼요? 과정이 있잖아요. 아시면서 그러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기 때문에……

○**한기호 위원** 아니, 국방위원을 10년 이상 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장교를 양성하는 곳이지, 신분을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바꾸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앞으로의 사관학교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장관님이 지금 오도돼서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밀리터리 아카데미라고 하냐 이거예요, 유니버시티(university)라고 안 하고.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니까 사관학교가 단순히 군을 양성하는 사관학교를 뛰어넘어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재원으로 저는 앞으로도 성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를 위해서.

○한기호 위원 더 이상 제가 여기서 장관님하고 입씨름하지 않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하십시오.

○한기호 위원 그러나 이 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군 출신들 바른 방향으로 가십시오. 나라를 망치려고 하지 말고 군을 망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가면 군이 망가진다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동의하든 안 하든, 장관이 어떤 형태로 나오든 관계없이 바른 길은 바른 길이에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내 생각만 옳고 남의 생각이 그르다는 생각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원칙을 내놓고…… 왜 장관님은 장관님 생각만 옳다 그래요? 장관님이 뭐 안다고, 얼마나 안다고!

○국방부장관 안규백 내가 모든……

○한기호 위원 장관님이 뭐 얼마나 안다고 장관님 생각이 옳다고……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한기호 위원 나도……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야기 들어 보시라고요!

○한기호 위원 왜 장관님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모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성일종 장관님……

○한기호 위원 각계각층의 의견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봐야지. 그러면 나는 각계각층의 얘기를 안 듣고 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안 듣고 하시잖아요.

○한기호 위원 장관님만 혼자 듣습니까? 장관님만 혼자 듣습니까, 저는 안 듣고? 저는 귀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강대식 강선영 김병기 김병주 박선원 백선희 부승찬 성일종 유용원 임종득
정청래 한기호 황명선 황 회

○청가 위원(1인)

김민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전문위원 문성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장관 안규백

차관보 원종대

기획조정실장 김은성

국방정책실장 김홍철

인사복지실장 김성준

기획관리관 오성식

법무관리관직무대리 이정민

국방개혁기획관 차원준

정책기획관 우경석

방위정책관 김대봉

인사기획관 이인구

군사시설국장 천승현

전력정책국장직무대리 이성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전준범

군인권개선추진단장직무대리 김미성

국방보좌관직무대리 박동걸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양진혁

병무청

청장 홍소영

기획조정관 김인환

병역자원국장 정재숙

입영동원국장 최정호

사회복무국장 서승일

방위사업청

청장 이용철

기반전력사업본부장 정재준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정기영

기획조정관 한경수

방위산업진흥국장 이형석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윤창문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이건완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신상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손재홍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5.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43)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5. 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56)

이상 2건 3월 26일 회부됨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6.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70)

3월 27일 회부됨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7.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92)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7.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04)

이상 2건 3월 30일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0.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45)

3월 31일 회부됨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

(2026. 3. 31.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5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1. 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96)

이상 2건 4월 1일 회부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 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2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 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33)

이상 2건 4월 2일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6.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6.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18)

이상 2건 4월 7일 회부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8.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78)

4월 9일 회부됨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0.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26)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0.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27)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0.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28)

이상 3건 4월 13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4. 7.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53)

4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제출일
대통령령	제36240호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	2026. 04. 07.
대통령령	제36241호	군예식령 일부개정령	국방부	2026. 04. 08.

○보고서 제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 송부

(2026. 3. 30. 국가인권위원장 제출)

위헌법률심판제청 통지문 송부

(2026. 3. 31. 헌법재판소장 제출)

2026년도 1분기 예산 이용·전용·이체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제출

(2026. 4. 2. 병무청장 제출)

위헌법률심판결정서(2026. 3. 26.) 송부

(2026. 4. 2. 헌법재판소장 제출)

헌법소원심판결정서(2026. 3. 26.) 송부

(2026. 4. 2. 헌법재판소장 제출)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 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결정문 송부

(2026. 4. 3. 국가인권위원장 제출)

2026년도 1분기 세출예산 이·전용 및 50억원 이상 세부사업간 조정 내역 제출

(2026. 4. 10. 방위사업청장 제출)